GRIT: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나는 자기계발서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후로 읽은 적이 없다. 약 6년 전 내가 중학생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한 번 읽고 용돈을 모아 자비로 두 책을 사서 다시 읽었다. 아직도 내 책장 한 쪽 구석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 그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었고 심리학에 한창 빠져 있었던 때에 자기계발서라는 분야를 거의 처음 접해서 그랬던 것 같다.

과연 따듯한 격려,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담은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책인지, 아니면 심리를 꿰뚫어본 듯하며 냉철한 멘토인’척’을 하는 궤변으로 가득 찬 책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확답을 내리 진 못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방황하던 시기에 심심한 위로를 받았다고 느껴서 좋은 기운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한경쟁사회, ‘수저계급론’, ‘헬조선’에 지친 현대인들이 꼰대 같은 마인드의 자기계발서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들이 다분히 갖으며 자기계발서 분야가 외면 받기 시작했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라며 청춘이 아파야 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뻔한 얘기만 반복한다고 한다. 나 또한 약간 공감했고 자기계발서를 경험하고 혼자 갖가지의 사유를 하며 아마 다시 이 분야의 책을 읽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른 분야들을 독서하며 자기계발서는 뒷전이 되었지만, 만약 내가 다시 자기계발서 분야를 읽는다면 GRIT이란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만하고 있었다. 내가 자주 들어가는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 받았기 때문이다. 독서클럽 도서목록에서 보고 반가워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를 때 GRIT을 골랐는데 아쉽게도 순위에 못 들어서 아쉬웠지만 화요일팀 담당 선생님의 적극 추천으로 읽을 기회가 생겨서 내심 기뻤다.

GRIT이라는 책은 여타 자기계발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지 궁금했다. 저자인 앤절라 더크워스는 성공에 있어 재능이 아닌 그릿을 강조한다. 그릿은 ’열정과 끈기의 조합’이며 관심, 연습, 목적,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재능에 대한 엄청난 선망이 있었기 때문에 1부에서부터 이미 실망 아닌 실망을 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느 하나 특출 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천재를 동경했다. 성공은 운과 재능,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저자가 성공의 열쇠는 재능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뿌리 깊이 그런 생각이 있었나 보다. 책에서 대놓고 성공에 있어 재능을 강조했어도 같은 결과였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목표의식에 늘 타인을 돕기위해 이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다. 타인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그릿을 더 높게 만든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그릿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책의 핵심인 그릿 ’열정과 끈기’는 중요한 것이라고 나 또한 느꼈고 대단히공감한다. 특히 끈기가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금방 식는 잠깐의 관심과 같은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성과나 결과물을 낳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무언가를 해보려는 열정은 많지만 열정의 지속성인 끈기와 열정의 실행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고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것을 책 읽는 동안 규명하고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요즘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 미래설계를 하면서 장기적,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릿이 부족하여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놓친 일들도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나의 그릿을 키우고 또 목표에 대해 의식적인 연습을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노력이 아닌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목표를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끊임없는 관심을 지닐 것이라고 다짐하게 되었다.